

사랑
남원





PHOTO ESSAY

‘저녁별’

노 천 명



그 누가 하늘에 보석을 뿐렸나
작은 보석 큰보석 곱기도 하다
모닥불 놓고 옥수수 먹으며
하늘의 별을 세든 밤도 있었다
별 하나 나하나 별 두울 나 두우울
은하수 바라보면 잠도 떨어져
고향하늘 별 뜯 밤 그리운 밤
호박꽃 초롱에 반딧불 넣고
이즈음 아이들도 별을 세는지

- CONTENTS - vol. 77



- 04 코로나19-청정지역 남원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세
- 08 정책
기업유치 1번지 남원
- 10 판소리 전승 · 보존 공간
안숙선 명창의 여정 개관
- 12 남원의 스토리를 미디어 아트로 융합하다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 14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교정시설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닙니다"
- 16 농민소식
두경운 농법으로 잎 두꺼운 상추 재배합니다
- 18 남원의 여름
을 여름은 남원에서...술기로운 남원 피서지
- 20 인물
국내 2호 이주여성 간호사



16

- 24 기획전시-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김영태 "누군가 다녀갔듯이"
- 26 남원시 체육회
상반기 중간 결산
- 28 언제나 계속되는 고향사랑
재외향우소식
- 30 SNS로 본 남원
지금 남원에서는~
- 32 더 발전하는 남원소식
- 34 남원시의회 소식
- 36 알림마당
- 38 취업의 문을 열자



2020. 6. 9 ~ 8. 30 일련의 2. 3 주 24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 이용하세요
|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 |

30,000



SUMMER 2020 - vol. 77

발행처 남원시
발행인 남원시장 이현주
발행일 2020. 06
주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620-6044
홈페이지 www.namwon.go.kr

남원시와 SNS로 친구맺기

f facebook.com/namwonstory
g blog.naver.com/goodnamwon
i instagram.com/goodnamwon
y youtube.com/user/goodnamwon

시민소식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남원시 홍보전선과 ☎ 620-604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포자 이야기

제작자는 남원을 제게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알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 코로나19—청정지역 남원

남원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세



△코로나19 남원의료원 격려

'코로나 확진자수 0명', '청정남원 사수', '정부재난지원금 전국최초 선지급'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마련' '재난지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숨통 트워' 등. 이는 남원시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처한 각종 성적표를 나타낸 말이다.

지난 12월 중국에서 발병된 중국발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가 올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에 접어들더니 급기야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창궐했다. 사상초유로 6월에 개학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야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전이지만, 그동안 남원시가 청정남원을 사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피해왔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정리해봤다.

남원시 코로나19 TimeLine

2020. 1. 31.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기동 코로나19 종합대응체계 구축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2020. 2. 7.	대중교통과 시설에 대한 매일 방역 · 소독 실시	2020. 2. 24.	남원시 각종행사자제, 다중이용 · 공공시설 휴관 검토	2020. 3. 4.	남원시 공무원 '와식의날' 매주 수 · 금요일 이틀 확대	2020. 3. 9.	코로나19 극복 위해 남원시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	-------------	----------------------------	--------------	-------------------------------	-------------	---------------------------------	-------------	------------------------------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

한 마음 한 뜻으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성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남원시민들을 보호,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감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원시장인 본부장을 필두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안전재난과, 보건소, 환경과, 주민복지과, 홍보전산과 등)으로 꾸려졌으며, 코로나 종합대응체계는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또 시는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 104개소(종합병원1, 일반병원4, 의원 58, 치과21, 한의원20)과 소방서,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시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성했다.

게다가 시는 선제적 방역을 위해 모든 대중교통 시설현장에 공무원을 배치,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공중화장실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2,733개)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해 철저하게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했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행사, 축제 등을 무기한 연기, 취소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휴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 청정 남원을 사수해왔다.

남원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송환자 완쾌 퇴원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남원의료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이에 남원시에서는 대구 경북지역 발생된 경증환자 51명과 해외 유학생 경증 환자 4명을 남원의료원에 이송, 치료했다.



2020. 3. 10.
코로나19 감염 – 확산방지
춘향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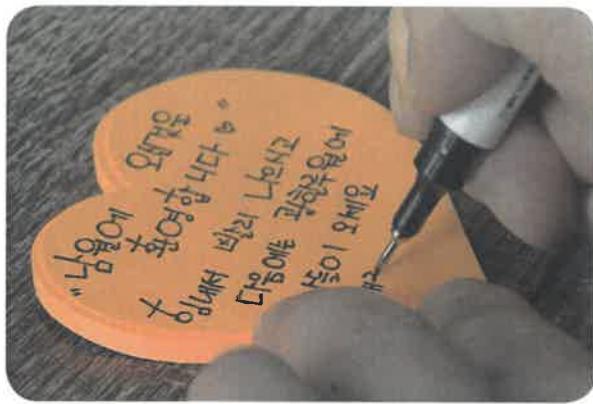
2020. 3. 12.
남원의료원 코로나19
이송환자 51명 격리치료

2020. 3. 16.
남원시민들, 코로나19 극복
희망 나눔 ‘감동’

2020. 3. 11.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020. 3. 13.
이환주 남원시장, 전통시장
방문 물품 구매 독려

2020. 3. 19.
이환주시장
“코로나19대응현신감사”
남원의료원 격려 방문



코로나19 남원의료원 이송환자 응원 메세지 전달



일회용 마스크를 만들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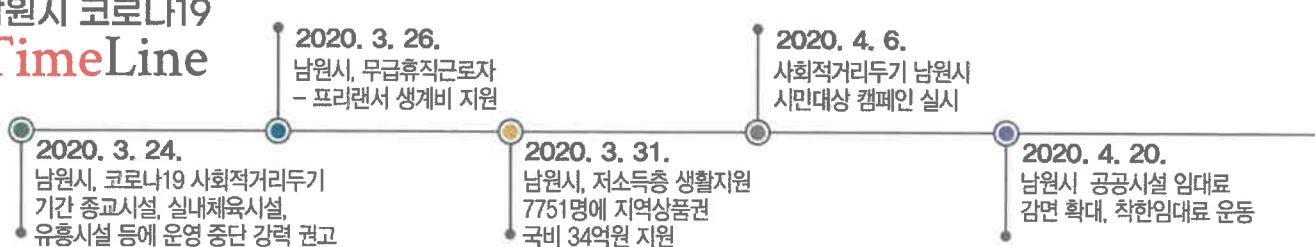
남원의료원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이송, 퇴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속에서 빛났던 시민들의 협조와 격려, 응원, 헌신적이었던 의료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남원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한 대구 지역 환자가 대구로 돌아가며 감사편지를 남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환자는 당시 “3월12일 남원의료원에 입원했다”면서 “사명감으로 정성껏 치료해주신 덕택에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각계각층의 기부릴레이 이어져...
‘코로나 극복에 동참한 작은 영웅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도 돋보였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지난 2월에 남원 노암동 마스크 생산업체 ‘더 조은’(김종남 대표)에서 마스크 3만개를 기부, 위기에 동참했으며, 남원시의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성금 5백만원 전달,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원의료원 의료진에 200인분 도시락 전달,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기부릴레이에 참여했다.

남원시 코로나19 TimeLine





남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점가 살리기 나서



남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효자노릇 특특(재난지원금카드)

실직한 비정규직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일자리 지원시책 분야에 32명을 채용했으며,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 400명(1일 4시간 기준)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개인당 10% 할인, 1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게 했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지난 5월 4일부터 모바일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긴급수혈 긴급재난지원금 2주나 앞서 지급.

지역경제 숨통 트워

긴급수혈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남원은 타지자체와 달랐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주나 앞서 빠르게 지급했으며, 이를 위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 남원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이러한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 5월 17일 기준으로 선불카드에 대한 매출실적이 총 9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95%의 지급률을 기록, 210억원(5. 22일 기준)의 지원금이 조기에 지역에 풀려, 소비진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순환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9월부터 남원시민들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난 5개월 동안 남원시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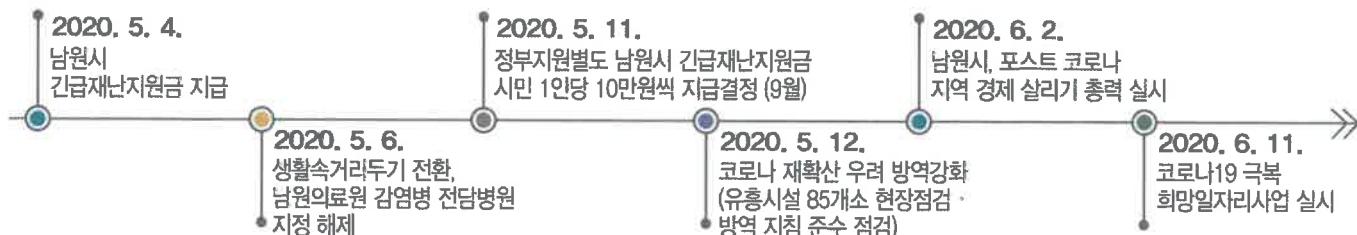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시가 펼친 각종 경제 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됐다.

그 결과 '코로나 확진자수 0명', '청정남원 사수' '코로나 선제적 대응 성공' 이란 성적표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러한 결과는 보이지 않게 현신한 유관기관, 행정,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솔선수범한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집단감염 경로 차단에 모두 동참,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렇듯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원시의 행보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정책 – 기업유치 1번지 남원

역동하는 지역경제,
기업유치 1번지 남원

계명제

남원 일반산업단지 7월 준공 투자여건 조성완료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이 92%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23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역시 7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기업유치 투자기반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남원에는 지역경제를 역동적으로 살릴 수 있는 우수기업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만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우수관로 및

상 · 하수도 관로포설 완료한데 이어 45개 블록 중 42개 블록 토공작업과 내부 도로망 구축도 완료해, 전체 96%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시는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난 2019년 6월 28일 전북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승인(고시) 받아 2019년 7월 3일 분양임대 공고를 내고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면적은 49만6천m²으로, 임대 면적은 9만천m², 분양가는 3.3m² 당 32만5,000



남원시, (주)LFF와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원선이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다. 이에 시는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1차 금속 등 4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본격 가동되면 1조 원의 매출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효과를 비롯해, 단지 내 기업체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연간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업 유치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최근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순조로운 분양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남원시, 전라북도,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대승엠엔에스와 남원 일반산업단지 첫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주)대승엠엔에스는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33,058㎡, 건축면적 3,998㎡ 규모로 투자, 모듈러교실(임시교사)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자로 70억원의 사업비와 2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17일에는 남원시와 전북도가 (주)LFF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LFF는 이번 투자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토지 9,860㎡, 건축 5,290㎡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70명의 신규고용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주공항, 군산항등이 인접해 있어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분양가격까지 저렴해 투자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남원 일반산업단지에서 기업의 꿈을 이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판소리 전승·보존 공간

7월 3일 개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

국악의 고장 '남원' 위상 한층 높인다.

국악의 도시 남원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이 오는 7월 3일
개관한다.

남원시 예촌 2지구 내에 들어선 '안숙선명창의
여정' 전시관은 5,832m²의 부지에 전시관과 전
수체험관 등 2개동으로 조성됐다.

전시관은 주로 명창 안숙선을 소개하는 코너로
꾸며졌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남원의 판소리와 안숙선의 소
리인생을 연대기적으로 선보이며, 안숙선이 걸
어온 소리인생 속 '명창의 길, 혼적'을 주제
로 공연의상, 대본 등 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선
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명창의 공연을 느껴볼
수 있는 영상도 준비돼있다.

또한 전수체험관에서는 춘향가 중 한대목인 '쑥
대머리'의 애절한 사랑노래를 3면 대형스크린
을 적용한 실감디지털아트콘텐츠와 안숙선 명
창과 함께하는 공연 및 대담, 남원 지역 명인 ·



명창 공연,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전시관 개관에 따라 오는 7월 3일 개관식도 펼친다.

개관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며, 국악인 남상일의 사회로 오후 5시부터 개최된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김덕수 & 앙상블시나위, 남상일, 남원시립국악단이 출연, 개관기념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 개관하게 되면,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는데 큰 역할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 국악의 도시 남원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산동면 출신인 안숙선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가야금산조와 병창 예능보유자이며 국립창극단 단장, 춘향제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남원의 스토리를 미디어 아트로 융합하다.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남원)



① Moonlight Park



② 사랑의 봉



③ 전기차



④ 아프리칸 테마파크



⑤ 모노레일



⑥ 짚와이어



⑦ 야간경관



남원관광지가 확 바뀔 전망이다.

남원시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여년간 폐건물로 방치된 구 비사별 콘도 건물 등이 문라이트 파크로 재생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23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00억원)을 들여, 남원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은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종합개발사업으로 5년간 추진되며, 시는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 사업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리플러스의 핵심사업은 ‘Moonlight Park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승월대, 이성계의 달오름 전설 등 남원에 남겨진 수많은 달이야기를 미디어 아트로 선보일 계획이다.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예상이미지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시립김병종 미술관의 대표적 작품과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들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핵심사업 상설프로그램으로 마당극 '달빛전설' 상설프로그램도 개발하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와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남원관광지 내 심야포차단지 조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등으로 구성된 '남원관광지 연계 코스개발 및 운영' 사업도 추진한다.

그 밖에 핵심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기점으로 앞의 요천로 주변과 광한루원까지 연계하는 전기차 운행과 대한민국 관광1번지 재생을 위한 관광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도 추진된다.

관리운영사업으로는 남원시관광협의회 및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내 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남원 켄싱턴리조트 옆 구) 비사벌콘도 유휴부지 지하공간을 재생하여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시설인 'Moonlight Park'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동일 부지 지상 1층에는 시민쉼터 및 편의공간과 옥상에 꽃빛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밖에 사랑의 광장에는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사랑의 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주변에는 테마별, 이벤트성 랜드마크인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에 문체부와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에서 도출된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담아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 까지 마무리하는 등 남원관광지 리플러스(RE-PLUS)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원관광지 전체를 다시 되살려서 과거 관광1번지였던 남원의 위상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 이동장 회의설명회

교정시설,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닙니다.”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지역살리는 또 다른 대안

과거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교정시설이 최근 고용 창출과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을 살리는 또 다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가 지난해 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의 교정시설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진, 유치에 힘썼지만 일부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시민들의 인식도 전환되고 다시 교정시설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점화되자 시가 이를 수렴,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유치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또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비	598억원(국비 / 법무부)
사업위치	대산면 운교리 외 5곳
사업규모	부지면적 150,600m ² , 건물면적 21,185m ²
정원	직원 200명, 수용자 500명

추진경과 추진상황

2019. 7.	교정시설 유치추진 사업 수립(재)
2019. 8~10.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홍보 및 설문조사 시행 이·통장/설문조사 결과: 441명 중 320명 찬성 (72.6%)
2019. 12. 5.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
2019. 11. ~2020. 1.	교정시설 건립 예정부지 공모 추진
2020. 2 ~ 4.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설문조사용역 시행 총 790명 찬성 : 58.5% / 반대 : 41.5%, 과반수 찬성
2020. 4. 21.	법무부 교정본부장 면담(시장)
2020. 5. 6.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2차회의
2020. 5. 12.	예비후보지 법무부 제출(5곳)
2020. 5. 28.	예비후보지 추가 제출(1곳)



▲ 교정분부장 면담



▲ 서울남부 교도소

우리마을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면?

“교정시설 건립 시 이러한 이점이 있어요”



인구유입

- 교정시설 200여명의 직원 상주로 인한 인구 유입



고용창출

- 교정시설 운영에 따른 직원 채용 (급식조리원, 시설보수원 등)
- 대규모 시설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범죄 안전 강화

- 진동감지 센서와 수백대의 감시카메라 등 강력한 감시 시스템 구축
 - 교정시설 방문객이 많고 주변 마을 주민 거주에 따른 보안철저
 - 교정시설 인근에 특별한 범행 관련 동기유발할 환경 없음 (유흥주점 등)
- ※전국 교정시설 인근 2km내 범죄율 거의 0%



지역경제 활성화

- 교정시설 주변 상권 활성화 (식당, 매점, 카페 등)
- 면회객 지역 방문으로 교통 및 숙식업 활성화 (정읍교도소 : 일평균 70여명)
- 수용자와 직원 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으로 주변 농가 판로 확보 (연 10억원)
- 시설 수리 등 공사 · 용역 (연 10억원)



집값 상승

- 전기, 도로, 가스, 상하수도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 땅 · 건물 시세 상승
- ※통영구치소 : 2005년 개청 이후 2013년 161% 상승
※영월구치소 : 2009년 개청 이후 2013년 167% 상승
※충주구치소 : 2004년 개청 이후 2013년 154% 상승



편의시설 조성

- 체육시설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 조성





*농민 소식

무경운 농법으로 잎 두꺼운 상추 재배합니다

- 남원 은주농장 이준화 오은주부부 -

‘동의보감’에 의하면 상추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에 막혔던 기를 통하게 하는 야채다. 또한 치아를 희게 하고 피를 맑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좋다.

남원시 인월면 자내리에서 8년째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이준화 님(53세)과 오은주 님(52세) 부부는 1년 365일 오로지 최상품의 유기농 상추를 키우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상춧잎을 두껍게 키우려면 사람도 좋은 걸 먹어야 하듯이 식물도 좋은 걸 먹어야 해요. 잘 크는 성분의 영양분을 먹인 후 안 크는 성분을 같이 주는데, 키우려는 성질과 성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만나면 자연히 잎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자칫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400평 하우스에서 4kg 박스로 하루 최대 150박스까지 따기도 한다. 유독 등락 폭이 심한 작물이 상추인데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꾸준히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잎이 두꺼운 상추를 재배하는 비법 중 가장 우선 시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꾸준한 관리에 있다.

“상춧값이 떨어지면 상추 농가들이 영양제를 안 먹이는데 저희 상추는 평소에 저보다 더 잘 먹여요.”



무게만 17킬로에 달하는 기계에 영양제 25킬로 가득 담아 어깨에 메고 2~3일 간격으로 영양제를 준다. 한방 효소와 아미노산 그리고 칼슘 등을 직접 배합해 만든 영양제는 상춧값 등락 폭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총 3천 평의 하우스에서 직원 5명이 하루 보통 100박스 이상을 수확하는데 부부가 기른 상추는 공판장에서 항상 최고가를 받기 때문에 직거래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일반 상추 농가에서 7~8,000원 가격을 받을 때도 그들 부부의 상추는 평균 27,000원을 받는다. 물론 공급량이 많을수록 높은 가격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최고가를 받을 수 없다.

2년 전엔 전국의 상추농가 중 최고가를 받기도 했다. 2019년도 상추 매출액은 3억 원에 달한다. 이중 수익의 1/3은 재투자에 소요된다.

현재 부부는 무경운 농법으로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무경운의 장점은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잣은 경운을 하지 않음에 따른 노동력과 연료비 절감이 된다.

무경운으로 4회 차까지 재배에 성공했고 두둑을 높여서 5회 차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질소, 인산, 가리가 뭔지도 모르고, 내 땅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장에 찾아와서 뭐 하면 좋냐고들 하는데 말로 배워서 되는 거 없어요. 땅, 물, 기후에 따라서 공급하는 성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돼요.”

농사 중 가장 쉽다고 하는 상추 농사도 끝이 없는 무한 반복의 노동이다.

세상에 쉬운 농사란 없다.



△이준화, 오은주 부부

*남원의 여름



을 여름은 남원에서... 술기로운 남원 피서지

△뱀사골

뱀사골, 구룡계곡, 달궁



△뱀사골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이 어찌 을 여름 무더위도 심상치 않을 기세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할 지 걱정이 되지만, 남원에는 뱀사골 계곡, 구룡 계곡, 달궁 계곡 등 한여름의 지리산이 있어, 걱정이 없다.

을 여름, 어디서 휴가를 보낼까 하고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남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편집자 주

지리산 하면 '뱀사골 계곡'?

지리산에는 아름다운 계곡들이 즐비하다.

특히 뱀사골 계곡은 반야봉(1,732m)과 명선봉 사이의 을창한 수립지대를 맑은 계류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르면서 아름다운 소와 명소를 일구어 놓은 장장 12km의 긴 계곡이다. 여름에는 무성한 숲과 옥류의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선사해 매년 피서객들에게 인기다.

9곡(九曲)으로 이뤄진 '구룡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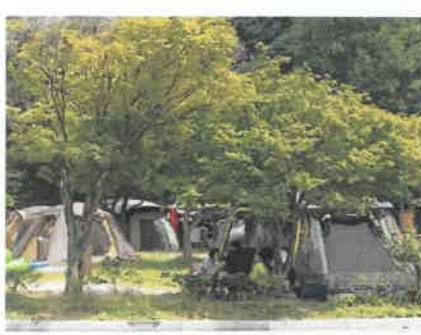
구룡계곡은 수려한 산세와 까야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일품인 곳이다. 특히 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완만하며, 탐방로가 계곡에 접해 있어 물소리를 들으면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임금이 머문 달궁 계곡, 야영객을 위한 오토캠핑장

지리산에는 임금이 머문 달궁 계곡도 있고, 달궁에는 오토캠핑장도 있다.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시원하게 흐르는 달궁 계곡을 끼고 있어 야영객들이 매우 좋아한다.



△구룡폭포



△달궁 캠핑



자기 좋은 남원 숙박지 추천

함파우소리체험관



주 소 : 전북 남원시 솔미안길 14-19
예약문의 : 063-620-5748

에코롯지



주 소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예약문의 : 063-620-5752~4

동편제마을



주 소 :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51-7
예약문의 : 010-6723-3183

트리하우스



주 소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299
예약문의 : 063-620-5754/5590

*인물 - 국내 2호 이주여성 간호사

5번 고배에도,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국내 2호 이주여성 간호사

14년차 남원댁

탁 현 진씨(35)



앳되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탁현진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주부이자 엄마다.

벌써 14년차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피부색이 다른 타국 출신지만, 이젠 그저 한국과 남원을 사랑하는 보통의 30대 한국여성이 돼버렸다.

대신 엄마, 주부, 이주여성 이란 낙네임에 최근 대한민국 제2호 이주여성 간호사라는 직함이 하나 더 생겼다.

'간호사'.

정말이지 10여년간 흘린 눈물과, 노력, 그리고 은근과 끈기로 얻은, 영광의 명찰이다.

5번 고배를 마시고도, 올해 당당히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그녀를 만나봤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소녀, 남원댁 되다

베트남 호치민 근방의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농사를 짓고 동생들을 돌보며 자라왔던 그녀는, 친척언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동경하면서, 자신도 제 2의 인생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렇게 20대 갓 넘은 한 여성의 2006년에 불쑥 전북 남원으로 이사를 왔다. 결혼식은 2006년 5월에 베트남에서 했고, 남편이 남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레 남원에서 거주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나이팅게일을 꿈꾸다

원래 베트남에서도 현진씨는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비록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일과 식모살이를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지만,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공부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었다.

여동생이 천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결혼사진

그런 바램 때문인지, 그녀는 한국에 와서도 마냥 살림하는 주부로 살고 싶지 않아 꿈을 실행으로 옮겼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년간 한글공부를 하면서,





졸업사진

한글어자격증 4급을 취득한 것이었고, 그러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차근차근 배움의 기회를 쌓아갔다.

“처음엔 다문화센터에서 한글교육 받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베트남에서 포기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그렇게 오수에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자연스레 대학 진학까지 생각하게 됐죠.”

무엇보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동기부여가 됐다. 간호대 입학에 대한 진로선택은 지인이었던 한약방 원장님의 권유로 더욱 확고해졌다.

넉넉치 못한 집안형편 소식에, 세화당 한약방 원장님은 학비까지 지원했다. 그렇게 현진씨는 전주에 있는 비전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현진씨는 수시전형으로 전주비전대학교에 입학 했지만, 학업과 가사를 병행해야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지런해야했다.

“매일 아침마다 전주 비전대로 통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전주까지 왕복 4시간이 걸렸거든요. 남원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고, 귀가해서 아이들 케어 했지만, 저는 밤에는 막차타고 와서 공부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육아는 뒷전이었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녀는 남편의 눈물겨운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결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2015년 2월에 졸업장을 땄다. 그리고도, 5년동안은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국가고시에 도전했지만, 간호사 국가고시 문턱은 높기만 했다.

“제대로 된 사전이 없다는 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핸드폰으로 통역 앱을 통해 베트남어로, 또 한국어로 번역해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5년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8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글과 의학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2019년까지 5번째 시험을 치렀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가 올 1월에 시험을 치러, 드디어 2월에 합격했다.

6번째 시험에서 이룬 쾌거였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첫마디는 “잘했다”였다.

그리곤 그는 이내 평평 울었다.

“매번 애썼다고 말해주던 남편이 합격 소식을 듣고서 평평 울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지난 10여년의 시간이 떠올랐대요. 저에게 남편은 참 고맙고 든든한 지지자예요. 나이차가 20년이나 차이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남편의 헌신과 지원이 없었다면, 제 꿈은 무산됐을 껴예요.“

그녀의 말대로, 남편 유영현씨는 그녀를 가장 아끼는 든든한 지지자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아내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단다.

이런 그녀의 특별한 사연 때문인지, 현진씨는 사실 방송계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도에는 강연 100℃에 출연했으며, 지난 2016년도에는 KBS 아침마당 전국이야기 대회에 나가서 ‘남원 아줌마의 꿈’ 이란 주제로, 당당히 으뜸공감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몇 해 전에는 E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도 할 정도로 그녀의 한국살이, 또 그녀가 꿈던 간호사의 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국적 경계 허무는 진짜 간호사 되고파

그녀는 자신처럼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분들이 남원에도 많이 거주하는데, 다른 이주여성들도 자신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주여성이라고 움츠러든다거나, 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생활의 만족도는 크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이주여성으로 두 번째 간호사가 된 탁현진씨.

올해 국가고시 합격 간호사가 되기 위한 꿈은 이뤘으니, 이제 취직만 남은 셈이다. 요즘 그녀의 바램은 남원의료원에 취직하는 것이다.



부부사진



가족사진

그녀는 다른 병원으로 취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 전문 지정병원으로 선택된 남원의료원에 대한 위상이나 인식을 새롭게 느꼈다고 했다.

“남원사람이니 남원의료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치고 싶기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 혼신한 의료진을 보면서 저도 그런 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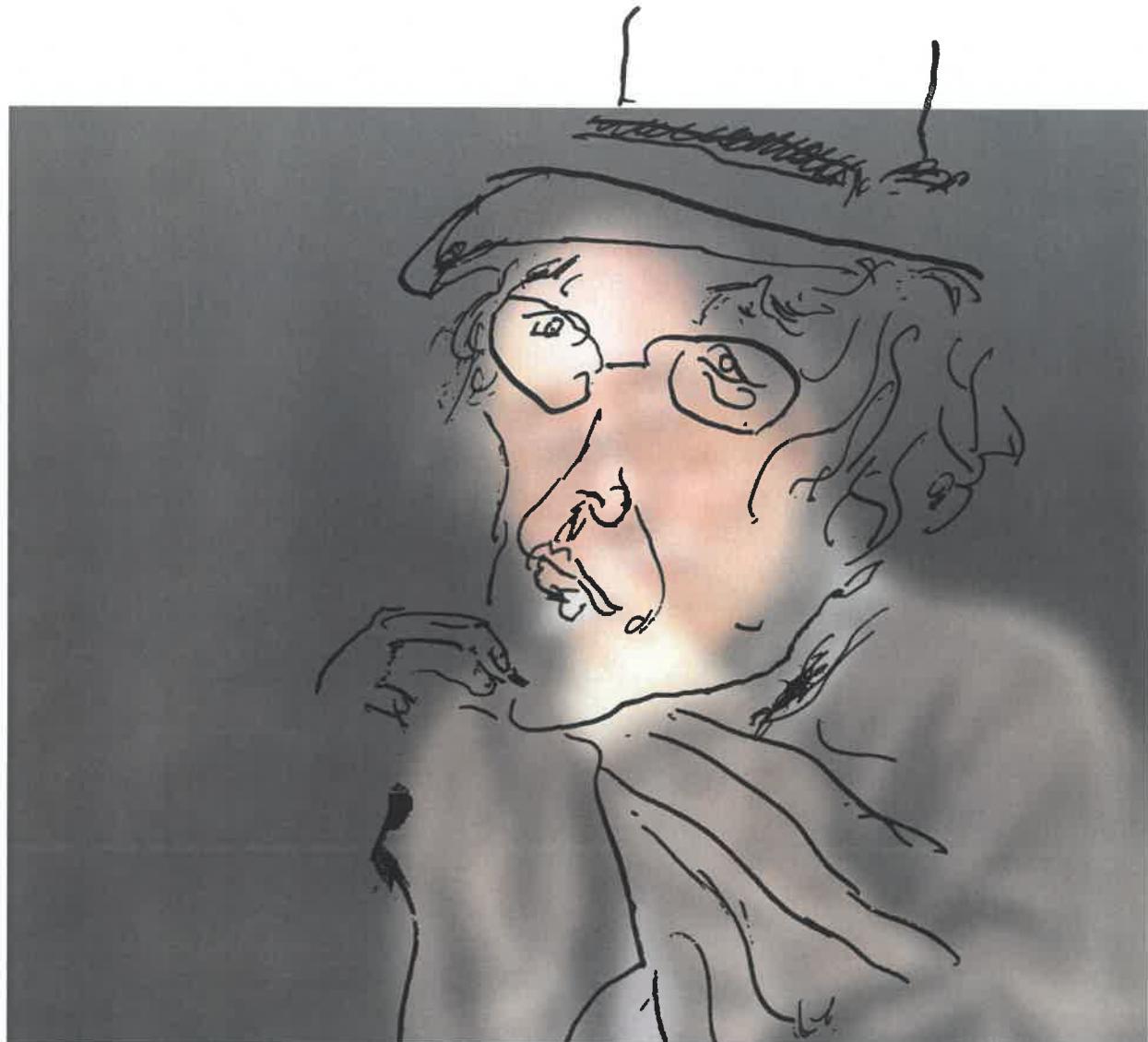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도 편하게 진료, 치료 받을 수 있는 데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생 때문에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됐고,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룬 그녀는 이제 앞으로 국적을 초월, 많은 이들을 챈어할 수 있는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총기 가득한 눈망울로 연신 자신의 삶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던 탁현진씨, 남원의 나이팅게일이 될 그녀의 앞날과 행보가 기대된다.

* 기획전시-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예술편력: 김영태 “누군가 다녀갔듯이”



누군가
다녀갔듯이

2020. 6. 9. - 8. 30. 갤러리2, 3





그리운 광한루, 종이에 먹,
45.0x29.5cm



헤르미야, 종이에 먹, 50.0x40.0cm



무제, 종이에 먹과 채색, 30.0x19.5cm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8월 30일까지 <예술편력: 김영태 “누군가 다녀갔듯이”> 전시회를 연다. ‘예술편력’ 전시는 매년 1명씩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업적을 이룬 작가를 선별하여 재조명하는 시리즈 전시이다.

2020년 예술편력 주인공은 화가, 시인, 수필가, 무용평론가, 캘리그라퍼 故 김영태(金榮泰, 1936~2007) 선생이다.

그는 ‘우리 시대 마지막 보헤미안’, ‘문화 딜레당트(호사가)’라고 불리며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김영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7학번 졸업생이다. 1971년 <피아노를 주제로 한 스케치전>을 시작으로 8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사후 회고전이 두 번 열렸다.

그리고 김영태는 유명 시인. 1959년 『사상계』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황동규·마종기 와의 동반 시집 『평균율』을 포함해 17권의 시집을 발표하였다.



김영태 시집

그 밖에 김영태라는 이름에는 수필가, 캘리그라퍼, 무용평론가, 음악평론가라는 꼬리표가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다닌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2층 다목적홀과 갤러리 2, 3에서 펼쳐지는 <예술편력: 김영태 “누군가 다녀갔듯이”> 전시에서는 김영태의 그림, 글씨, 출간 도서들과 지인들과 주고받은 엽서 등 각종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김영태가 김병종 교수에게 보낸 엽서와 피봉 세 점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김병종 역시 그림과 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대표적인 예술편력가 아닌가.

올 여름에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예술의 세계에 잠수해버린 김영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남원시 체육회



남원시 체육회, 상반기 중간 결산 스포츠 도시 남원 만들기 위해 '잰걸음'

시민숙원 남원 실내수영장 상반기 착공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크고 작은 체육행사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줄줄이 순연되면서 급기야 지난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북도민체전 남원 개최도 2021년 익산 개최로 인해 오는 2022년으로 연기됐다.

이런 상황이지만, 남원시 체육회는 지리산권 중심의 스포츠복지 도시,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올해는 초대 민선체제로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체육회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원시 체육회의 올 상반기 활동을 점검해본다.

민선체제 전환, 사무국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

남원시체육회(회장 양심묵)는 지난 1월 15일 초대민선체육회장 취임 이후 합리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체육회장은 '남원시 체육발전이 곧 남원발전이고, 더불어 남원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체육으로 하나되는 남원시'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신뢰받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체육회 임원진을 개편,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참여시켰다.



취임식

이에 남원시 체육회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생활체육 42개 종목단체와 23개 읍면동체육회와의 열린 소통시스템을 마련,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체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체육회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무국 기능도 강화시켰다.



생활체조 경연대회



남원시 '생활체조광장' 운영 재개

체육회 사무국의 인력현황은 현재 1팀 14명이지만, 새롭게 구성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종목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지원 시스템이 가능해져,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공공체육시설 대대적으로 확충

남원시 체육회는 중점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제반 환경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춘향골 체육공원에 256억원을 투입, 8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완공한 테니스장 4면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6레인,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전천후 족구장 3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4면, 실내탁구장, 전천후 인라인롤러 롤링기장, 인라인로드경기장 등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실내배드민턴 경기장은 설계단계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년 전북도민체전 추진 및 올 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북도민체전 남원 개최는 올해 불가능해졌지만, 스포츠도시, 남원의 면모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남원시체육회와 남원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내년까지 완비, 2022년도에는 정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회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나 대회는 차질없이 개최, 남원시 체육증진사업에 부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회는 올해도 국제대회(3종목), 전국대회(16종목), 지역대회(19종목), 참가대회(4건), 전지훈련 등을 차질없이 개최할 예정이며, 18종목의 생활체육교실사업, 26개 토요스포츠프로그램, 10개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사업도 알차게 운영할 예정이다.

양심묵 회장은 “남원시 체육발전이 곧 남원발전인 만큼, 앞으로 화합하고 사랑받는 체육회를 운영, 스포츠복지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향을 떠나 있어도 고향사랑은 영원합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하는 고향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으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고향 남원을 잊지 못해 고향을 떠나서도 고향발전에 헌신하는
남원 향우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기업체 방문

기 간 2020. 3. 26 (목) 10:00 ~ 14:00

방문처 (주)한성가전산업

(대표 김한조, 49년생, 덕과면)

내 용 일반산업단지 분양 안내, 고향 남원에
투자유치 요청



▷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애향심이 많으며
현 사업장이 재개발 추진 중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음.

고향 남원으로 투자 이전을 적극 요청하였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 업 종 : 열판제작 (전기밥솥)

- 종업원 : 50명

- 매출액 : 100억 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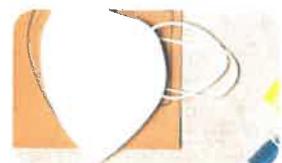
※ 1984년도 창업 하였으며 쿠쿠전자, 삼성 등에
납품하는 유망 중소기업

뱀사골 고로쇠 약수 등 농특산품 홍보 지속 추진

▷ 재경 및 수도권 향우들에게 문자메세지,
카페 등을 통한 고향 농특산품 홍보 및 관심
요청에 많은 향우가 참여

코로나19 예방 수제마스크 만들기 재외향우 후원 - 3백만원

후 원 재경남원향우회,
재인천남원향우회,
재경前사무총장 박진균



신기남 향우/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임 기 2020. 4. 9 ~ 2022. 4. 8

※ 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 ·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

기업유치 및 시정홍보 활동 지속추진

▷ 인천 남원향우회 방문 장영복 회장께
산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 설명과 함께 투자요청,
향우 기업인께 홍보 요청





재인천 남원향우회 월례회의 개최

기 간 5. 14. (목) 18:00 ~
장 소 빛고을 맑은촌 (향우 운영)
참 여 30명 정도 (장영복 회장외)
※ 코로나로 인하여 4개월 만에 월례회의 개최하였으며
장영복 회장외 참석자 모두는 고향이 발전하기를 희망함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기업체 방문

기 간 2020. 5. 26. (화) 11:00 ~ 14:00
방문처 (주)태광 PC건설 (영등포소재)
대표이사 천영래 (63세, 아영)
내 용 일반산업단지 분양 안내, 고향 남원에 투자
유치 요청 등



재외 향우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경기 성남 중원구 더불어민주당(54.62%)
윤영찬 1964. 8. 5 주생면
(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울대 자리학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1968. 5. 5 사매면
(전)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전라고
서울대 법대



재인천 남원향우회 산악회 등반

기 간 6. 13. (토) 1일간
장 소 문수산
참 여 30명 정도 (권희복 산악회장외)
※ 매월 등반을 통하여 향우회 활성화와 고향 사랑에
동참하고 있음



남공회원 인사이동

왕기성 (덕과, 공정위) → 대구지방사무소장 취임 (4. 6)
김환식 (대강, 교육부) → 전남대학교 사무국장(4.10)
박진훈 (수지, 기재부) → 복지예산과 (4.17)
이우태 (사매, 기재부) → 국채과 (4.17)
강병삼 (송동, 과기정통부)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4.20)
이영철 (죽항, 국방부) → 국방정보본부장(중장) 5.8
지광철 (금지, 기재부) → 국제기구과장 (6.1)

*SNS로 본 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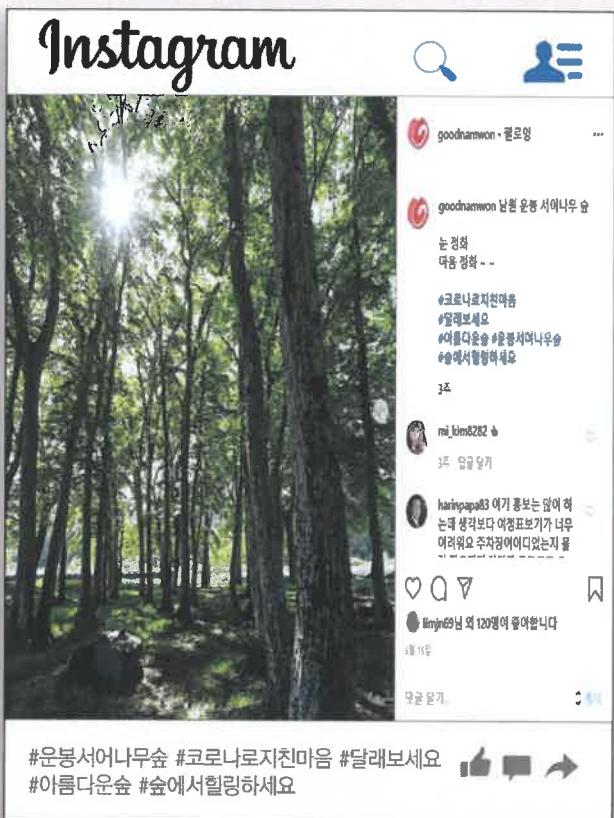
SNS

지금 남원에서는~

SNS에서는 어떤 남원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을까?
지금 따끈따끈한 남원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  facebook.com/namwonstory
-  blog.naver.com/goodnamwon
-  instagram.com/goodnamwon
-  youtube.com/user/goodnamwon





* 더 발전하는 남원소식

• 시민이 행복한 시정구현 •

이환주 남원시장, 2년 연속 지방자치 행정 대상 수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 공약이행률 등 모범행정 높이 평가

남원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이환주 시장 공약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남원시, 3년 연속 재난관리 잘하는 지자체 선정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남원시, (주)대승엠엔에스와 7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남원시청소년수련관, 2020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정
남·임·순 최초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

남원시 춘향愛인, 전국5대 농산물 브랜드 선정
지난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877억원 달성



• 시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

조선시대 서당 '관서당 남성재'
남원예촌 관서당 키즈 카페로
색다른 변신

아름다운 금수정 새 단장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금수정 조성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남원시 동림로 116,
2020.6.15.(월) 업무개시



희망2020 나눔캠페인 우수시군 선정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로부터 우수시군 감사패 전달



남원시, LH와 노암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 행복주택 120세대 건립



남원관광지 RE-PLUS로 '재탄생'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공모 선정



과수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45억 투자 (국비 35억, 시비 10억) 차별화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남원시, (주)LFF와 100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 순항



남원시, 취약계층 대상 이동빨래 서비스 본격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가정 등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시행



명창의 여성 개관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 상설 국악공연,
전문 교육과정 운영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 음악분수대
시범운영



지리산 허브밸리 오해브레이 호텔 오픈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유치사업의
결실 5월 29일 개장





2020년에도 남원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였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은 남원시의회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한해였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시작한 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Covid-19의 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확산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시민들은 침체된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코로나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미선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236회 임시회 :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제정과 추경편성

4월 24일부터 15일간 열린 제236회 임시회는 위기상황에서 의회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된 회기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토대가 되었고 차후 자체적인 긴급재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제1회 추경을 통해 의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국외연수비용 등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도내 최대 규모의 삭감이었다.

제237회 정례회 :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

남원시의회는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제23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적인 제안을 쏟아내었다.

·제236회 임시회, 코로나 사태 극복 앞장서 ·제237회 정례회,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 의회활동 이모저모 -



△코로나 방역 지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 개소식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간담회



△운영위원회 활동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속도 내어야”

(강성원 의원), “구도심 활성화에 역사문화적 시각을 접목해야” (박문화 의원),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지원해야”

(양해석 부의장), “효행 장려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양희재 의원),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기울여야” (이미선 의원),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전평기 의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별 지급방식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고, 또한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가를 따져물었다.

제8대 전반기 : 집행부를 선도하는 의회상 정립
제23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는 8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년간 15회에 걸쳐 22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3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9회, 자유발언 67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왔다고 평가 받는다.

8대 전반기는, 집행부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여정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는 이념은 8대 후반기에도 이어져 시민의 좋은 길벗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알림 마당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 안내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내 무연고분묘를 관계 법률에 따라 개장하여 대학설립부지 확보 업무를 추진 하오니 연고자 본인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지들이 '분묘 연고자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개장시기 2020년 7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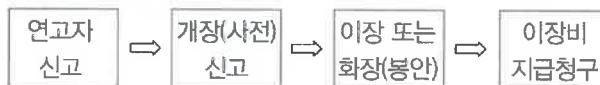
안치장소 승화원

(남원시 솔터길 40-36, ☎ 063-632-5874)

대상 분묘 및 위치도

구분	소재지	지번	분묘 수량
분묘	남원시 월락동	205-1(2기), 산25(116기), 산26(8기), 산27-2(16기)	142기

유연분묘 이장 및 개장절차



연고자 신고 및 이장비 지급청구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 ☎ 062-372-1256~8

남원시청 기획실 : ☎ 063-620-6093, 6095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강화되었습니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미등록 농약 사용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출하연기 또는 농산물 폐기 명령

⇒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

※ 미 이행하는 농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농약 확인 네이버에서 "농약정보 서비스" 검색

문 의 농촌진흥청 1544-8572, 산림청 1600-3248

남원다움관 근현대 전시유물 구입 안내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관의 전시 및 보존자료로 활용하고자 근현대 유물(자료)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입대상 자료

자료범위 : 1894년 ~ 현재까지 남원의 풍경, 경제, 생활, 예술 관련 자료

자료유형 :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사진(필름 포함), 물건, 박물, 문화재 등

구매분야	구 입 대 상
남원풍경	지금은 사라진 남원의 옛 풍경 자료 ☞ 요천 말바위, 갈매기빵집, 막걸리 골목 등의 사진, 기록 등
남원시장	시장의 옛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공설시장, 용남시장, 북부시장 등 사진, 자료, 매뉴판 등
남원극장	남원극장 관련 각종 자료 ☞ 남원극장, 정화극장, 제일극장 등의 티켓, 포스터, 사진 등

참가자격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

서류접수기간 2020. 6. 1.(월) ~ 8. 31.(월)

접수 및 문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행정지원과 남원다움관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 : glarejin@korea.kr

관련 문의 : 남원시 행정지원과 (☎ 063-620-6083)

※ 서식 : 남원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http://www.namwon.go.kr>)

생생하고 알찬
생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남원시 상 · 하수도요금 문자(SMS) 고지 서비스 안내

가입대상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대상자

시 기 2020. 6월부터

신청방법 팩스 등 신청서 접수 및 전화(063-620-6870)
- 문자(SMS)고지 취소 시—전화로 신청

문자내용

구 분	내 용
고객정보	성명, 주소, 수용가번호, 납부형태(일반, 자동이체)
청구내역	당월금액(감면내역), 체납금액
부과정보	업종, 가구수, 전월지침, 당월지침, 사용량
납부계좌	일반 : 가상계좌번호, 자동이체 : 출금계좌
기타사항	공지사항 등

신청 및 문의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063-620-6870)

남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사업별로 분산돼 제공되던 각종지원 사업을 시민들이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결혼·임신·출산, 영유아, 학생, 청·중장년, 어르신 등 8개 분야의 생애주기별로 나눠 정보를 제공하는 인구정책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namwon.go.kr/ingu/index.do>
- 남원시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홈페이지 별도 구축



문 의 남원시 기획실(☎ 063-620-6092)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안내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위험요인의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기간 2020. 7. 1 ~ 12. 31.

사 업 랑 90명(선착순, 수시모집)

참여조건

- ① 만 19세이상 남원시민(직장포함)중 스마트폰 자유 이용자
- ② 혈압·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건강위험요인 중 1개이상 보유자
(단, 고혈압, 당뇨 등 약물 복용자 제외)

서비스내용

- 모바일 앱 및 활동량계(스마트밴드) 연동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

-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신청문의 보건소 건강생활과

(☎ 063-620-7974, 620-7987~8)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출동경로 조율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출동경로 조율하기

* 취업의 문을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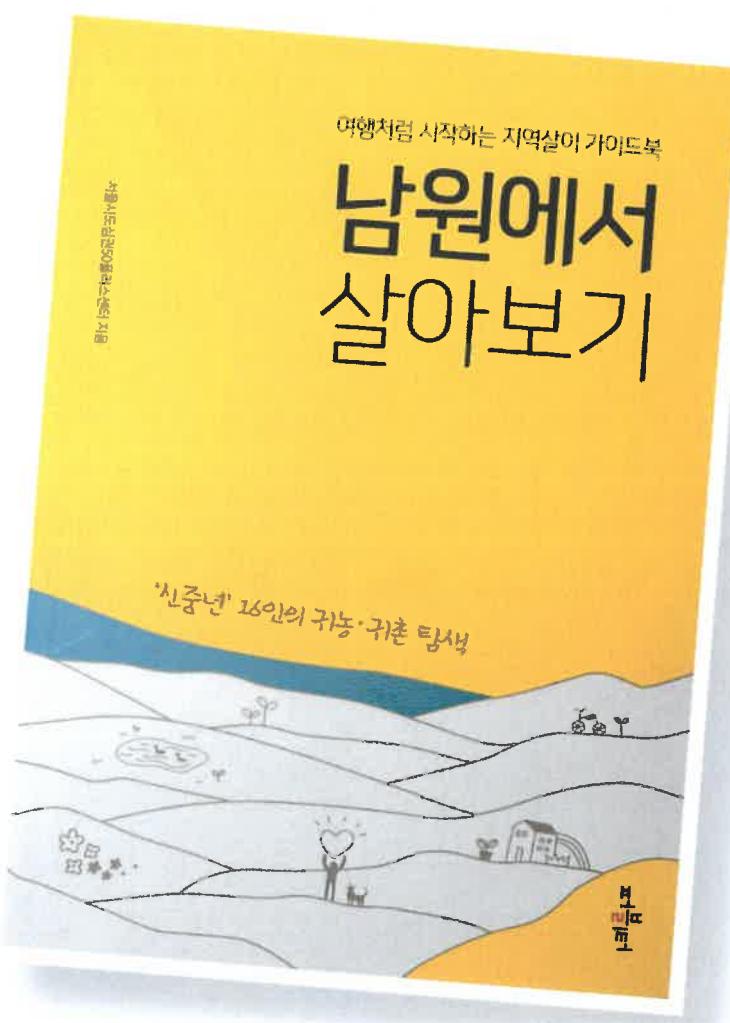


남원시 구인정보



모집업체	모집직종	직무내용	인원	근무지	문의
농업회사법인 (주)풍년농장	사무원	제품,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 및 기타 생산지원 업무	1	보절면	063-635-8219
(주)대상개발	굴삭기 기사	골재장 굴삭기 운전	1	수지면	063-636-1188
(주)오헤브데이	프론트 사무원	숙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숙박절차 안내 및 check-In/Out 담당	2	운봉읍	063-636-800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효림원	사무원	일지관리, 서류작성 등	2	노암동	010-4997-6322
(주)대지	생산직 사원	용접 및 프레스 작업	3	광치동	063-843-4453
서남재가노인 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가정방문 어르신 케어	1	동충동	063-636-8871
전라북도공무원 교육원	조경관리사	조경 및 잔디밭 관리 (제초작업, 화초식재등)	1	산곡동	063-290-5129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청사청소원	인재개발원 내부청소 (화장실, 복도, 계단, 유리창, 쓰레기 분리 배출 등)	3	산곡동	063-290-5129
(유)서원건설	토목관리자	GPS 측량관련 업무전반 급여	3	금동	063-625-0018
산이고운코아루 아파트	전기과장	아파트 전기, 소방, 급수 시설등 관리	1	월락동	063-636-0988
동양칼라강판	경리사무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익 금액계산 서류 정리	1	용정동	010-4829-7882
(복)풍악복지재단 편한세상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언어진단) 및 사무업무	1	대산면	063-634-9988
남원효사랑요양병원	조리사	요양병원 조리사	1	향교동	063-630-3803
(유)가 덕	생산직 사원	용접 및 프레스작업	2	광치동	063-625-4754
(유)광고시대	사원	옥외광고물제작 산업디자인, 전기기능사	2	충정로	063-625-9815

* 상기내용은 각 업체의 채용현황 및 기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원에서 살아보기'는 글 좀 쓰는 퇴직 전후 장년층(만50~64세) 16인이
2019년 9월 3박4일간 남원을 여행하며 놀거리·일거리·할거리·먹을거리를
기록, 남원 귀농 귀촌 탐색살이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서울시도시권50플러스센터가 지난해 운영한 '50+,
남원·지리산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간됐다.



춘향
사랑을 90th 하다

제90회
춘향제

남원

주요행사

춘향제향 | 개막공연_뮤지컬 “춘향은 살아있다!”
춘향선발대회 | 춘향국악대전

2020. 9. 10 THU ▶ 9. 13 SUN

남원광한루원

주최  남원시 주관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